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분열의 안철수는 왜?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는 석연찮은 점들이 많다. 이상해 해야 하나, 이해해야 하나, 받아들여야 하나, 비판해야 하나, 기대를 버려야 하나, 기대를 키워야 하나? 종잡을 수가 없다.

첫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그나마 혁신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대표 인물이라면 문재인과 안철수인데, 대체 왜 힘을 모으지 못할까? 당내 두 인물과 당외 혁신 기대자들의 힘을 모으고 모야오 혁신이란 단행하기 어려울 텐데, 대체 왜 탈당을 했을까? 안철수를 따르는 젊은 정치인들마저 문·안·박 연대를 제안했건만, 그게 그리 들리리가 된다고 보았던가? 돌이 힘을 합하면 수구든 기독교든 반 혁신 세력이든 능히 무찌를 수 있을 것이건만, 총선을 이기면 모든 공이 문재인에게만 간다고 보았던가? 국민들이 본인의 진심과 올인 노력을 몰라줄 것이라 심던가? 그렇게 국민들의 판단을 믿지 못하겠던가?

둘째, 왜 안철수 주변을 인적 혁신의 대상으로 채우는가? 혁신의 기본이 인물 혁

신이고 호남에서의 기존 정치인 지지가 20%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는 건가? 지금도 들쭉이는 비주류, 유혹의 피리를 기다리는 이른바 비주류 의원들 중 과연 국민의 눈에 합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던가? 총선 전 교섭단체를 만들려면 당장 필요하겠지만, 막상 공천 시점이 되면 당장 본인이 세웠던 혁신 인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 '세력은 모으고 불일'에 빠진다면 안철수의 새정치 깃발은 어디로 갈 것인가?

셋째, 왜 총선을 앞에 두고 대선 타령인가? 사실, 안철수의 모든 행보를 대선에 맞추고 보면 모든 게 딱 들어맞는 것이 영 찜찜하다. 본인의 대권 야망이아 축복해 줄 사안이다. 그런데 왜 총선 시점을 마치 대선후보 뽑듯 대결의 장으로 만드느냐? 협력과 연대는 없다고 하느냐? 자기 세력 규합, 상대 세력 위축이아 현실 정치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왜 하필 지금인가 말이다.

아권이 분열하면 수도권은 필패라는데 모르는 국민들이 있는가? 지금도 혼용

무도(昏庸無道 : 혼군과 용군이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 교수신문이 뽑은 2015년의 사자성어)의 세상이건만, 박근혜 정권이 200석 가까이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감을 셤인가? 아예 대선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를 판인데 말이다. 넷째, 탈당하자마자 온통 주목해 주는 주류 언론들의 속셈을 모르는 건가? 이용당해 주는 척 이용하는 건가? 이용하는 척 이용당하는 건가? 민주개혁 세력의 분열 공작이 수구 기독교 세력의 핵심 수단인 걸 모르나? 이른바 주류 언론들과 이른바 종편 내부맹이들이 왜 안철수라는 개인을 그렇게 띄워 주는 것 같은가? 본인이 너무도 뛰어난 인물이어서 그러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언론들이 언제 안철수에게 말을 들이낼지 정말 모르는 건가? 언론을 장악한 여권의 분열 공작을 진정 모르나, 모르는 척하는 건가?

다섯째, 대체 안철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들)은 누구란 말인가? 요즘 인기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를 보면 이른바 도당 3인방처럼 무능한 왕을 옹립하고 이용하는

권력의 책자들이 끄찍하지 않은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른바 '진박 책략, 진실한 사람 마케팅'이 유지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지만, 그 콘크리트를 무엇으로 부술지 국민의 용기를 끌어낼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여섯째, 궁극적으로 안철수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대통령 꿈'은 접어 두고서라도 고통받고 협력받고 희망을 잃어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절망, '헬조선'화되어 가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가 대통령 하나 바뀔다고 없어질 것 같은가?

일곱째, 왜 안철수는 호남을 괴롭히는가? 왜 호남을 편 가르려 하는가?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찢으며 과연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며 통합할 수 있단 말인가? 호남 사람들의 시름과 절망을 속속들이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저 깊은 한숨을 내어 쉴 뿐이다.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칼럼

원수를 사랑하라



김범성 광주원불방 송 사장

아기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구촌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고 거리에는 종소리와 함께 자선냄비에 온정의 온도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불교농성교당 교무와 교도들은 무진교회 성탄절 예배에 참석해 축하의 노래를 부르더니 잠으로 보기 좋은 광경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모두를 사랑으로 엮어 주신 거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참으로 범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도 등 돌리고 쳐다보지 않는 인간 관계인데 어찌 원수까지 사랑하

라 하겠는지. 또 성경에 "원손이 한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도 인류를 구원할 성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도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전쟁에 인육 선인으로 수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가리왕(kalinga)에게 낱알이 산채가 찢기는 고통을 당할 때 하늘에서 제석천이 이 광경을 보고 내려와 가리왕을 벌주려 하니까 인육선인은 "내가 아무 잡념 없이 참았으면 인육은 옮겨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픈 것을 모질고 독한 마음으로 참았다면 그것은 나의 옮은 인육이 아닙니다. 나의 오늘이 인육이 참된 인육이었다면 이 폭군을 벌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금강경 14장이 상제님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팔 다리가 잘려도 마음에 고통이 없었고 더욱이 내 몸을 이렇게 만든 가리왕에게 벌을 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닮아 없을 것입니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님도 초창기 영산 앞 바다를 막아 언답(堰壩)을 만들 때였습니다. 초기 간척을 시작할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 일이 성사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야유하더니 1년이 되는 그 세월 동안 차차 언답이 조성되고 규모가 갖춰지자 마을 부호 한사람이 관계 당국에 간석지 개척원을 제출하여 소유권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때 대종사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또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했으니 그 사람이 대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반궁한 해법 주민들에게 상당한 눈이 생기게 됐으니 이 또한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되지 않았는가" 하시며 제자들을 다독였습니다.

또 원불교 교도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웁니다. 그중 다섯 번째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며 합장공경하고 그렇게 살겠노라 맹세를 합니다.

큰 그릇에 거울을 깔아 놓고 물을 채웁니다. 바람이 없을 때 그 거울을 들여다 보면 우리의 얼굴이며 대상이 날날이 다 비취 보입니다. 성자들의 마음입니다. 비추어진 형상마저 그 거울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고

통이 마음을 괴롭히지 않으며 1년이라는 수고로움으로 간석지를 개간하여 내 소유가 안 될지라도 그 마음에 원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에 빨간 물감을 한방울 떨어트리면 빨간색 거울이 되고 파랑 노랑의 물감을 떨어트리면 그 물은 검은색이 되어 우리의 얼굴을 비취 볼 수 없습니다. 무명으로 가려진 중생의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업으로부터 현재 안이비실신의 6근작용으로 우리 마음속에 쌓인 정보들은 우리의 마음을 감게 만듭니다. 거기에 탐심 집심 치심이 더해지면 내 밥 그릇만 차지하려는 아귀(鰐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자들의 마음을 닦으려는 신앙과 수행을 통해 검은색 마음을 하나하나 털어 내야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도 맑은 마음의 거울을 갖을 때 세상을 바르게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천년 묵은 동굴을 밝히는 데에는 천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등불 하나 켤 때 세상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의 글을 읽어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고

인간 숲 속의 이웃 부재



양흥수필가

동물은 모여 사는 군거본능(群居本能)을 갖고 있다. 사람도 혼자 떨어져서는 못 산다. 사람도 틀림없이 동물족의 일원이자다.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정을 나눈다. 모여서 서로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한다. 그런데 현대인은 자기들의 지혜로 만든 기계와 기구로 산업을 발달시켰고, 그 결과로 도시를 형성시켰다. 도시 문명은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했고 많은 것을 발전시켰다. 이런 변화의 연속 속에서 인간의 능력에 경의를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도시 문명은 거대한 인간 숲을 이루게 했지만 이웃이 없는 인간 절도(絶島)에서 고성(孤城)을 쌓는 우(愚)에 자족하는 인간을 만들고 말았다. 나는 약 5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지에서 4년 11개월째 살고 있다. 어떻게 알았는지 집을 지을 때부터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약간 있을 정도였

다. 거의 매일 다녀가는 우체부 집배원이 "계속해서 살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관심을 가져 주는 이웃 밖에는 이웃 같은 이웃이 내 동리 안에는 없다. 나도 따라서 남의 이웃이 못 되고 있다. 뒷집의 노인을 만났더니 며칠 전에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너무나 안됐기에 점심 한번 대접했다 몇 달 후 대문을 두드렸더니 온 다리가 말없이 벌써 다른 사람이 이사 와 있었다.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이웃 없는' 것 때문에 편리한 세상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가 떠나고 내가 죽어도 서로 모른다. 그가 굶어도 내가 배불라도 서로 상관 없다. 그가 벗고다니고 내가 정장을 해도 서로 눈치 볼 것 없는 세상을 '자기연애'라는 구실 때문에 다행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다. 사람들은 도시생활의 이런 무명성(無名性) 때문에 도시의 매력력을 느끼기도 한다. '무명성의 매력'을 얻을 없이 살려는 충동이기도 하다. 결국은 무제면의 인간 사회를 형성한다. 강간, 살인 온갖 부도덕을 백주에도 행하게 하는 마약이 바로 이 무명성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충동과 무엇을 남기고 죽으려는 욕망이 있다. 이런 충동, 욕망 때문에 사회는 지속이 됐고, 역사는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사람이 모여 살면서 자기가

남에게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 그 사회에 이바지하며, 역사 장초에 동참하려는 욕구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데 대해 동의의 아니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사람은 이런 본능에 끌려 진지하게 질문하며,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의 재발견, 철학과 종교의 탐구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어진 오늘 그 하루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은 그 하루하루가 연결되어 인생이 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과거를 잊으라는 교훈을 듣는다. 과거에 불행했던 일은 물론 행복했던 일까지도 잊어야 한다는 설교도 듣는다. 과거에 불행했던 일은 잊음으로 새로운 용기를 낼 수 있고, 과거의 행복했던 일도 또한 잊음으로 현재의 조건들을 불평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데는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과거를 잊을 수 있는가? 사람의 과거란 오늘을 천금같이 살아온 인생기록이다. 오늘은 벌써 과거가 되는 것이고, 내일은 벌써 오늘로 다가와 있는 것이다. 어제를 잊으라는 말은 오늘을 포기하라는 말일 수도 있고, 이런 맥락에서 내일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인생은 엄숙한 것이고, 개개인의 삶은 크고 작든 간에 장엄한 것이고. 인생은 누구나 자기의 발자취를 남기고

간다. 총장으로 어느 시골 형색의 노인이 걸어가고 있다. 모양은 늙었지만 품위 있고 고상해 보인다.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알고고도 아니한다. 그 노인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설명하는 일도 없다. 남들은 그저 그 노인이 사회 보장을 받고 사는 고독한 사람으로만 알고, 가끔 측은한 눈짓을 보여 줄 뿐이다.

그런데 그 노인이 고향에서 교육훈장까지 받은 교육가로 고향 학교의 교장직까지 지냈던 일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 노인이 고향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해보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대하는 예의가 있고, 커피숍에서는 차 값을 내고 가는 제차도 있을 것이고, 설날이 되면 세배 드리는 하객도 적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것은 그가 심은 과거의 씨가 햇빛을 받았을 을 보고 사는 보람일 것이다. 그런 오늘의 보람은 또 아름다운 과거를 만들고, 희망의 내일을 오늘로 불러오는 미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줄 것이 아닌가!

어쨌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인간 숲 속에서 살면서 '이웃 부재'를 안고 살아가야 하며, 그 속의 퇴임자들은 자랑스러웠던 과거마저도 혼자만의 기억 속에 폐품으로 남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서글픔이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社說

'금수저' '흙수저' 깊어만 가는 양극화 사회

올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신조어로 '금수저'와 '헬조선'이 선정됐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대변한다. 또한 '헬조선'은 청년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혹독하고 버거운지를 말해준다. 여기에는 마냥 우스갯소리로만 들을 수 없는 아픔이 있다. 금수저는 부유한 부모 아래에 자라 경쟁 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사람이나 계층을 지칭한다. 혼자만의 힘으로 온갖 고초를 감내해야 하는 흙수저와 대비된다. 헬조선은 취업 관문 뚫기의 어려움이나, 취업했다라고 버티는 것이 지옥(Hell)처럼 힘들다고 해서 생겨난 말로 빠듯한 일상과 피폐한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암울한 풍자가 난무하는 것은 사회 불만과 갈등 또한 크다는 증거다. 못 가진 사람들이 가득된 세력과 부유층에 보내는 적대감은 사회 불안으로 직결된다. 빈부 갈등이 쌓여 폭동에까지 이

르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금수저란 말은 결국 사람 팔자가 태어날 때 정해진다는 의미여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요즘에는 금수저도 모자라서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오는 판이다. 양극화 사회에 대한 자조적 메시지를 지어 '삼포세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고민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헬조선의 탈출구는 청년실업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어진 임무에 충실히 경기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함께 노동 여건 개선으로 근로자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게 사회적 책무다. 국민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의 유행어와 신조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공생(共生) 노력을 기울이면 모두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다.

급증하는 보험사기 근절 대책 마련해야

보험금을 타 내려고 주민들이 단체로 보험사기를 벌이고, 아내가 남편의 사망보험을 노려 내연남과 공모해 살인을 저지른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갖가지 유형들이다. 금융 당국이나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는 모두 307건이었다. 피의자만 해도 모두 680명에 이른다. 지난해에 112건(575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광역경찰은 최근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특정 병원에 입원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 내 최 모(여·40) 씨 등 한 동네 주민 21명을 검거했다. 최 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광주·전남 49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27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4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광주 서부경찰에 붙잡힌

140여 명의 주부 등은 성형 수술이나 피부 시술을 받은 뒤 병원 운영자 등과 공모 등산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 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운영자는 물론 전·현직 보험설계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험사기는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고는 추세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보험사들의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과 사회 전반의 도덕 불감증 탓일 것이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보험사기 가능세도 높음에도 실적 때문에 가입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부터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발생 시 보험사의 부주의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문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정부도 관련 병·의원 등의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돈으로 벼슬을 사는 매관매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해졌던 뿌리 깊은 악습이다. 옳지 못한 짓인 줄 모를 리 없었지만 워낙 은밀히 진행되는 데다, 벼슬을 사고 파는 두 당사자에게 모두 이득이 되기에 쉽게 외면할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것이다.

지난주 발표된 전남포 재향군인회장의 비리 혐의에도 이와 비슷한 게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 사업가에게 "향군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향군 경영 총괄 자리를 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고 17억 원의 돈을 주었다. 조 회장은 또, 지난 4~6월에는 두 사람으로부터 "향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6000만 원과 5000만 원씩을 받았다.

매관매직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돈과 같은 자산이 있어야 하고, 자리를 팔려는 사람은 그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구매자가 이 자리를 이용해 본인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친목도움을 제외한다면, 사회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조직은 이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사를 예로 들면, 일자리를 얻으려 할 경우 적합한 신체조건이나 지식이라는 자산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그 사람의 자산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직을 하면 생계를 꾸리고 저축까지 할 수 있는 돈을 받게 된다. 회사라는 조직도 겉으로는 일자리를 '거러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경우에는 '매관매직'이 아닌 것은, 입사를 비롯한 각종 과정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공정한 경쟁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자리를 지킬려면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혁신'을 다짐했지만 결과는 항상 공염불이었다. 특정 정당의 이름표만 달면 '막대기도 당선'이 되는 '행태가 일부 지역에서 되풀이되어 왔고, 유권자들은 '매관매직'이나 '마찬가지'라며 냉소해 왔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도 '혁신'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나눔'을 내세우는 공천으로 '진정한 혁신'이 이뤄질지 기대한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